



'세계 물의 날' 광주천 물체험 '세계 물의 날' (3월22일)을 맞아 광주 조대여고(교장 국석표) 2학년 430여명의 학생들과 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21일 오후 광주천 물길을 따라 생태체험 및 환경보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유태명 동구청장 전격 체포

검찰 '불법 선거조직 구성' 이틀째 조사...박주선 의원 소환 임박

전직 동장 투신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광주시 동구 불법 선거와 관련 검찰이 유태명 동구청장을 전격 체포해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중)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수속처를 밟던 유 청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됐거나 수사 중인 관련자로부터 유 청장이 불법 선거조직 구성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지시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청장은 지난 7일 검찰에 불려가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체포한 유 청장을 간단히 조사하고 잠을 재운 뒤 21일 오전 10시께 다시 불러 이날 밤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주선 국회의원을 도운 혐의가 분명한 만큼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동구 계림1동과 지원2동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동구의회 남보(여·56) 의원과 통장, 동구청 자원봉사자 직원,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박주선 의원을 돕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수첩까지 제작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불법 자금을 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유 구청장의 체포로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오늘·내일 총선 후보 등록...29일부터 선거운동

새누리·민주당 선대위 출범

4·11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4·11 총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총선 출마 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새누리당은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선대위원장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았다. 민주당도 이날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했으며, 상임선대위원장은 한명숙 대표가 맡았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만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비방과 흑색선전, 돈 선거,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 ▲부재자신고(23~27일) ▲선거인명부 확정(4월2일) ▲부재자투표(4월5~6일) ▲투표안내문 발송(4일) 등의 일정으로 총선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서구갑 박혜자 해남·완도·진도 김영록

민주당 총선후보 확정

민주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무위원회에서 공천 보류된 광주 서구갑과 해남·완도·진도, 전북 남원·순창(이강래 의원) 등의 공천을 확정했다. 광주 서구갑은 박 교수와 각 확정됐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공천이 마무리됐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선관위 조사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선거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무위원회에서 공천 보류된 광주 서구갑과 해남·완도·진도, 전북 남원·순창(이강래 의원) 등의 공천을 확정했다. 광주 서구갑은 박 교수와 각 확정됐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공천이 마무리됐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선관위 조사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선거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서 승리했으나 박광온 예비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신청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공천 확정이 늦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공천 실패한 민주당이 심판 대상”

4·11 선택 D-20

개혁·물갈이 실종 지역민심 악화
계파갈등 심화...야권연대도 삐걱

4·11 총선 민주당의 공천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1일 최종 마무리 됐지만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정권 창출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후보 공천이 현실성 없는 국민경선으로 투신자살 사태를 빚은 것은 물론 각종 동원 경선 의혹에 얼룩지고 당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처'만 남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과 야권연대에서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MB 정권 심판론'이 아닌 '민주통합당 심판론'마저 제기되고 있어 광주·전남 민심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더 나은 시대로 나가기 위한 각오와 다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표가 직접 나서 후보 공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당내외의 분위기는 심각하다. 공천이 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친노·486 등 당내 주류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데 대한 반발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장, 박영선 의원이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최고위원직과 'MB 비리'

특별위원직을 사퇴했다. 박 최고위원은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그간 공천 과정을 보면 기준이나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한 민주통합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도 순환규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이 불참하면서 빛이 바랬다. 순 전 대표는 '백의종군'하겠다고 공동 선대위원직을 고사했지만 배경에는 공천에 대한 섭섭함이 깊게 깔여있다는 관측이며, 정동영 의원도 출범식에 불참했다. 야권연대도 삐걱이고 있다. 관악을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데다 수도권 후보 단일화 지역구에서도 재경선과 무소속 출마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야권연대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 공천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민심 이반도 확산되는

추세다. 현실성 없는 국민 경선으로 투신자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데다 동원 선거 후유증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구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선관위 조사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총선 이후 무더기 재보궐 선거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경선에 참여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직력을 기반으로 100% 재공천되면서 지역 민심의 변화 요구가 공천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합당에 대한 거부 정서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나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약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지역 정치권에 대한 지역 민심의 신뢰 구조가 붕괴돼 10년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행복한 광주
수돗물

광주 대표 상수원 - 동복호

빛여울수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빛여울 수! 믿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상수원은 무등산과 백아산의 청정한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유입되지 않은 좋은 조건을 기본으로 자동으로 정수약품을 주입하고 수질관리가 철저하여 깨끗합니다.

- 현재, 상수원수는 좋은 조건의 수질상태 유지
- 미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한 수질기준에도 적합한 물
-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능력을 갖춘 수질연구소에서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쳐 생산

빛여울 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수돗물 절약 실천 사항

- 샤워, 세수, 설거지, 세탁 등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 시에는 받아서 사용한다.
- 수도꼭지 등 누수방지를 위해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절약형 샤워꼭지를 부착한다.
- 하수구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지 않는다.
- 샴푸, 린스,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인다.
- 한번 사용한 물을 재 사용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